지상백고좌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

“불자라면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질 수 있어야”

12면에 이어

동주 원명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제일가는 어장인 송암 스님 문하에서 소리를 익혔다. 송암 스님은 열반하기 3일 전까지 강의를 하셨고, 제자들이 물으면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가르침을 주었다.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동주 원명 스님은 2013년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주석처인 홍원사에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을 설립하여 후학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주 원명 스님의 문하에서 경제어산 이수자인 문현 스님, 정오 스님, 현준 스님 등 여러 경제어산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배출되어 조계종단의 어산을 이끌어가고 있다.

조계종 어산 어장의 맥은 동주 원명 스님의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05년 조계종 원로회의에 참석해 동주 원명 스님은 ‘1954년 불교정화운동 이후 강원에는 강사, 선원에는 조실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지만 어산의 어장 전통은 끊어졌다. 어장을 복원하자’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동주 원명 스님이 조계종 초대 어산 어장으로 추대됐다.

스님께 불교 대표 재의식인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의 설명을 구했다. 설행하는 것만을 봐서는 속인이 보기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서다.

“영산재는 죽은 자를 위한 재이고 49재입니다. 생전예수재는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생전에 미리 지내는 재입니다. 이것도 사자(死者)를 위한 49재와 동일하게 49일 동안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수륙재(水陸齋)는 육지와 바다의 유주무주 고혼을 위해 지내는 의식입니다.”

스님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내외로 초청받아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을 시연하셨다.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이기에 범패를 공연하면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때 내가 범패의 길을 가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다.

동주 스님은 죽은 이를 위한 재를 많이 올리다 보니 임종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이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동주 원명 스님이 후학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2022년 홍원사에서 열린 경제어산 시연회.

“우리가 평소에는 말을 안 듣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면 바로 반응해서 듣죠. 우리는 숨 안 쉬고 있으면 죽은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뚱이 중에서 귀가 제일 늦게까지 의식이 남아있다고 해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간에 저는 법문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주 원명 스님은 망자들에게 들려주는 법문 한 자락을 그 자리에서 전했다. 이 법문은 우리도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다.

“이 몸뚱이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해가 떴다가 시간이 되면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꼭 믿으면 반드시 당신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간다. 왜 그런가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부처님이 약속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 염불왕생원(念佛往生願)이라 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이는 내 이름을 염불하여 왕생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원래는 평생동안 지극 정성으로 아미타불을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숨넘어갈 때만이라도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보살을 대동하고 와서 극락세계로 데려오겠다고 부처님이 약속했다.

“아미타불 염불을 당신이 지극히 부르면 대보살과 스물다섯 보살이 당신을 극락세계로 데려간다.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영접받아 서방정토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내가 먼저 아미타불을 해요. 임종 직전의 사람이 소리 내서 염불은 못하니 생각으로 따라서 부르라고 합니다.”

자비심 갖고 내 가족과 이웃 대해야
지혜 키우려면 ‘불교 경전 공부’부터
“지혜 있는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아”

동주 원명 스님이 염불을 10분 정도 해주면 금방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손발이 다 굳고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깨어난 분도 보았다고 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듣고 극락세계로 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진다.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됐음을 새삼 깨달았다. 이내 스님은 염불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다.

“신라시대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32명의 스님들이 ‘만일염불회’를 결성해 염불수행을 했어요. 건봉사에 만일염불회를 연 32인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갔다는 것을 기록한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만일 동안 부른다는 것, 1000일을 10번 곱하여야 1만일이 된다. 2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서방정토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총림이라고 하면 선원·강원·율원·염불원이 갖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통도사 한 군데만 염불원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옛 염불원에는 북과 광쇠가 갖추어져 있어 그걸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는데 참 신명나지요.”

스님은 인연이 닿으면 임종염불과 임종법문을 한다. 특히 임종을 앞둔 가족들에겐 숨넘어갈 때 울지 말고 조용히 아미타불 염불을 해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죽을 땐 잘 죽어야 합니다. 시끄럽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르면서 울고 소리치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마지막 귀한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니 좋은 곳에 가기 어렵지요. 우리가 원한이 있으면 좋은 곳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애착도 원한만큼 좋지 않습니다.”

동주 원명 스님은 팔순 노구이지만 새벽 종송을 하고, 새벽 예불을 올린다. 지금도 새벽에 600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팔순이신데 그렇게 절을 많이 하시면 무릎이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라고 했더니 “다리가 좋지 않긴 하지만, 수행자에겐 당연한 일”이라는 현답(賢答)이 돌아왔다.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을 위해 불법(佛法)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문을 요청했다. 이내 스님의 법문이 곧바로 이어졌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신(迷信)이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희미하게 믿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고, 이러면 될까 안될까 하고 저울질하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100% 믿고 기도하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금강경〉에 ‘여래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5번이나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를 올린다면 소원성취가 될까요?”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인데 불자들은 경전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자비심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지혜를 키우려면 경전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경전의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아요. 살려준다고 해도 고마울 것이 없어요. 지혜로 생사가 본래 없음을 깨달으면 우린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리를 일어나며 인사를 올리니 스님은 짧은 법문이자 당부로 화답했다. 스님이 설한 법문은 내겐 ‘금구(金口)’로 다가왔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행복해야 하고, 지난달보다 이달이 더 행복해져 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문윤정 / 작가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특별가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21일~10월 30일(9박10일)
동참금 | 34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 고창고성, 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인도, 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90만원~310만원
▶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 다질링,부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정 : 10월13일~22일(8박10일)
인도 다질링은 세계적인 홍차 산지로 히말라야 칸첸중가(8,586m)가 바라보이는 관광 명소입니다. 다질링으로부터 육로로 불교왕국인 부탄으로 가는 일정은 아름다운 다질링과 부탄을 순례하는 멋진 일정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다질링–부탄 팀푸–푸나카–파로–델리–인천
동참금 | 43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6일
중국 서안관광과 맥적산석굴, 병령사석굴, 돈황석굴등 실크로드 코스에서 중요한 3대 석굴을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13일~18일(5박6일)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양귀비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동참금 | 259만원

중국 육조단경의 혜능대사를 찾아서 5일
▶광주 육조 혜능대사의 수계 삭발처 광효사
▶혜능대사의 진신이 모셔진 조계산 남화선사
▶육조단경을 설하신 육조대사 설법도량 대감사
▶혜능대사가 사냥꾼들과 지냈던 사회현 육조사
▶육조 혜능대사의 탄생 및 입적도량인 국은사
출발일정 : 11월19일 ~23일
동참금 | 159만원
일 정 | 인천–광주–광효사–소관–남화사–대감사–운문선사–사회시 육조사–조경 칠성암 경구–신흥 국은사–광주–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